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지난 주요예배 메시지

달고 오묘한 그말씀 / 4월 19일 금요일회

승천하신 예수님 (골 6:1-11)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의 역사적 사실적 사건으로, 그의 승천 또한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떠한 문명의 시대를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가 승천하신 이유를 생경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천은 신자의 믿을 생명의 직접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가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마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행 10:38),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로 그분을 열광하게 하셨으며(17:4), 십자가에서(마 26:46)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으며(10:30), 여호와와의 열심으로 다윗의 위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성취하셨다(사 9:7).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셨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중보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없기에(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대단한 25), 그는 인간이 첫 연약 때에 범한 죄를 속히하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얻은 자로 하여 그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대단한 9:14~15).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기쁨의 근원으로 만든 성으로 들어가시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신다(히 9:27).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히 8:6).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까지 성령 강림이 사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를 동일한 진리와 능력으로 이르고 가신다. '불자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물로써만 성령을 받으시지 아니하여 성령을 받으시라' (눅 24:49).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 14:16).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성령에게 교회나 신자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자기 자신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는 기쁨이 임하였다고 자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 15:26).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와인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들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밭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여 이는 내가 성령의 생각을 아니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롬 8:26~27).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자타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알려주셨다(요 14:1~3).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고 찬란한 곳이다(고전 2:9). 그 곳은 더 나은 방향이요(히 11:16),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처소이고 같은 새 예루살렘이며(겔 21:2~3),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하는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서, 오직 어린양의 생명의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며(겔 21:23, 25, 27).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는 오직 오시겠다는 '언약'이 포함되었기 있으며, 이것은 신실하게 성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재림에 대한 언약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무릎에 앉으신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4. 약속과 율법의 관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진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를 이해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율법들은 선지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를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다. 즉, 구약성경에 약속된 선지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모세 자신이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신 18:15), 예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셨으며(막 4:4, 눅 13:33), 베드로와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선지자임을 증거하였다(행 3:22, 행 7:37).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낮아진 모세의 삶은 예수의 낮아지심을 생각나게 한다.

모세의 12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는 가장 화려로운 왕궁에서 가장 처참한 자리인 광야로 내려앉아 희생과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 가족과 친척과 회교와 아내의 집을 버렸으며 자신의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모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넣어서 세상에 보내셨듯이,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골 4:12, 행 23:18).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맺은 관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였다(민 12:6~7, 신 5:22, 26~27, 출 34:29, 30, 35).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광채는(출 34:29~30, 35)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고후 4:6).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모세의 권세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다(민 12:13). 또한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출 32:13~14, 32, 신 9:26~27).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던 모세의 모습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하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으나 거절당하던 모세의 모습은 고난의 잔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의 모습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은 십자가로 향하는 완전한 종의 모습을 보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사 53:7~8). 요한계시록 15장3절에 모세의 노래가 들려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어린양의 노래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지자, 참된 신 메시야가 분명하다.

신앙 발달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조스리게 하시는 자의 종만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만물과의 각종 지배를 맡게 하려 하시니(요 1:3)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명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만(엡 1:23, 3:10, 2:1)

1936년 9월 6일 중무로에 처음 설립되었던 총현교회와 어떤 50년이 다 되어가고, 아직 역동적으로 이천한 것만도 벌써 18년이 되어갑니다. 벌써 배가 커지기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총현교회와 점점 더 작아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생경하게, 참 진정으로 주님께 영명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감찬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부름의 상을 기대를 향하여 나날이 '5대 목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5대 목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추게 해 줍니다.

본당에서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재교육관과 재교육관에서는 22개 주일학교가 각각 지명된 정소에서 총성스러운 천국입문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교육관은 젊은이들을 위한 믿음의 공간으로서 그 대·청 젊은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요람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에서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나라, 멀게는 세계 각처의 오지로 복음으로 돌고 다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선교관은 올해 일천 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는 진정한 선교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관(구방수관)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며,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재발의 기회를 받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당 1층에 있는 유원지를 교육관 1층으로 확장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교회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일리는 통로역할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총현교회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를 건널고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웃사랑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며, 이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총현의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 사명을 열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시라"(고전 3:17). 믿음처럼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일한 마음으로 구별의 모든 건물들을 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내 몸처럼 교회의 모든 건물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떻게 스스로 청소하는 등,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총현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부름의 상을 향한 좋은 이웃이 되는 터로서, 5대 목표를 온전하게 이룩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무전(장로, 권역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행정위원장 신홍용 장로입니다.

The Message of the Lord's Supper

(Romans 5:6-8)

For while we were still helpless,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For one will hardly die for a righteous man;

though perhaps for the good man someone would dare even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Today's Bible verses mention helpless, ungodly, and Jesus. Jesus died for the weak people. Also, these Bible verses mention a righteous man, a good man, sacrifice, grave, and blessing. That's the kind of words that come out this Scripture. In this world, nobody purposefully died for a sinner. Does our human history show anyone, other than Jesus, who died for sinners? Only Jesus died for sinners. God showed us His amazing love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v. 8). We hear that a lot, but wouldn't you prefer to see it? If you hear something a hundred times that's not better than seeing it once. We've heard the words of the Lord's Supper many times, let's go today and see it. The Bible verses concerning the Lord's Supper talk of His body and blood, today's Bible verses regard our weakness and Jesus' sacrificial death. Instead of hearing about it, let's see it. Do you want to go to Calvary mountain with me?

By seeing the cross, by seeing that somebody died on the cross to show His love is what the Lord's Supper is all about.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final. It happened once and it happened for all. The message of the Lord's Supper is not about eating and drinking stuff. The real message is the meaning of the cross. The Lord's Supper concerns the cross itself. Without the cross, there would be no Lord's Supper. Without the cross, the Lord's Supper is pointless, useless, and foolish. Do you want to see, know, and learn the lessons of the cross?

When you go to Calvary mountain, you see and receive the lesson of God's love. Listen,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v. 8). Look with your own eyes! Jesus died on the cross. He suffered the death of crucifixion. He sacrificed His life for the lives of sinners, that includes you and me. The extent of God's love is shown in the fact that Christ died for men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Can you see His love? Can you feel His love? Christ died for you. He didn't do anything wrong, not ever. He was perfect in every way. What a sacrific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This isn't just talk or emotion, it's the real thing. You can see it.

Joshua 1:5 reads,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God doesn't just say things, He acts upon His Word. You can see it. A lot of people make promises they never keep. Jesus' words at the Last Supper weren't just words. He actually went and did what He said. You can really see His sacrificial love. He never fails. He never drops out in the middle of things. He finishes what He starts—always.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There's no gap here, no discrimination, no wavering. Whoever hears, thirsts, or wants can come. The love of the cross is not just love words, there words of action. You can feel them. They provide for our every need. Jesus paid for our redemption.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And the angel of His presence saved them; In His love and in His mercy He redeemed them, And He lifted them and carried them all the days of old" (Isa. 63:9). From beginning to end Jesus does it all. It's not just talk. So, like I said earlier, we go to Calvary mountain to see, not hear.

At the cross, you can see and learn the lesson of Jesus Christ's loyalty. "For while we were still helpless, at the right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v. 6). Jesus didn't die for righteous people—good people. There are only a few people in human history who died for good people or a righteous cause, but the death of Jesus Christ was absolutely for sinners. He died, absolutely, for the ungodly, the unbeliever. Even though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by mankind, He died for them. "Surely our griefs He Himself bore, And our sorrows He carried; Yet we ourselves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Isa. 53:3-4). He was loyal until His death and can be counted as loyal always. Christ's love is truly pure and sincere. He was dedicated all the way through, even unto His death. That you can see, "Therefore when Jesus had received the sour wine,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Jn. 19:30). That's a lesson of loyalty.

Finally, at Calvary Mountain we receive the lesson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our sin. How serious is sin? The Father God turned His face, turned away from His only begotten Son,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t. 27:46)? Even God the Father forsook Him, that's how serious sin is. The consequence of sin bring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The blood of Jesus cleanses us from all sin,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n. 1:7). He paid the price for our sin with His blood. The cross is shameful. You can see that. Jesus shamed Himself so that your sins could be wiped away, forgiven, and forgotten. Without His sacrifice, your sin would bring death. Praise God for His love shown on the cross.

Let us pray, "Jesus, I want to join You at Your table in Your name. Your flesh, Your body, Your bread and cup, I touch to my lips. Please come into my heart, Your wonderful body and blood, and fill my spirit. Thank You Lord for dying for me, I want to die for You." 🙏



김성관 목사

성만찬의 의미

(롬 5:6~8)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오늘의 성경본문은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의인과 선인, 회생과 죽음,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역사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제외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지 예수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8절),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백 번 정도 들었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의 사랑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들어왔고, 오늘 그것을 행하고 대화해 줍니다. 주의 성찬에 관한 말씀은 예수의 몸과 피를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약함과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것 대신에,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 함께 갈보리의 산으로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주의 성찬과 죄인을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젊은이를 바라보으로써, 주의 성찬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의 성찬의 절정이었습니까. 그것은 단번에 완전히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찬이 주는 메시지는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 자체로 십자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주의 만찬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주의 만찬은 의미도 가지지 않으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그 십자가에 담겨진 교훈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

여러분들이 갈보리의 산으로 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8절).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그 사랑을 일깨워준 한 여자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상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희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것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랑

히브리서 1:5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평생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네 앞길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가 하신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천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단지 말한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의 희생적인 아끼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은 결코 중도에 멈추거나 그만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매듭지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여기에는 자이도, 차별도 없으며, 후회와 흔들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분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지 말만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라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공로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느니라”(사 63:9).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그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예수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에 대한 교훈을 바라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6절). 예수께서는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선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본능히 경건치 않은 자들, 또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인간들로부터 경멸과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땀을 받아서 사람에게 걸터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땀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 53:3~4). 그분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충성스러우셨고,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실로 순결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있어서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충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버림받으신 의미

마지막으로, 갈보리의 산에서 우리는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심각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께 의민 당하신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제 구 시 즌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디니 하신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를 버리실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 6:23).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운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 드립시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 험입어 당신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에서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패어주시는 떡은 찢기신 몸, 나눠주시는 잔은 흘리신 피, 그 초라한 떡과 잔이 내 입술에 닿을 때, 구주여, 내 영혼에 임하옵소서. 경이롭게 임하시는 당신의 몸과 그 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여,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조 문 수 (철사, 12교구, 우크라이나 단기선교 팀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영적인 전쟁을 일 주일이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마치 결전의 한 판을 앞둔 병사의 심정과 같습니다. 요즈음 저 세상 of 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생각하였던 세상의 일들, 심지어는 가족에 관한 일마저 그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에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준비일정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며, 개인적인 준비물 목록을 챙겨봅니다.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점검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였지만, 별로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해외선교에 내가 동역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니, 이것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표라고 믿습니다.

사역자는 서부 우크라이나의 르보프 시이며, 그것은 주님이 정하여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크라이나 정교, 러시아 정교, 그리이스 정교, 로마 카톨릭이 종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개신교의 전파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르기만 한 이 은둔의 도시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정교회의 성상들이 굳어 버린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주를 찬양하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는 민박지를 베이시 캠프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전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 사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심과 기차역, 광장 등에서 전도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로서 이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기도제목

1. 팀원을 가정과 직장에 크고 작은 일들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2. 선교의 경험이 없이 갑니다. 주께서 보내는 구름기둥으로 밭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3. 현지에서 전양 및 국과 간단한 인사말만을 익혀서 갑니다. 현지에서 적절한 도움이 잘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4. 선교 기간 동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팀원 전체가 하나의 지체가 되도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 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초의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창 2:17)라고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아담과 하와와 영원한 주인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아담과 하와가 늘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신 것들을 에덴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늘 선악과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늘 그것을 보면서 ‘저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라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로에게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끄셨고, 그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 인식은 바로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피조물된 내 앞에는 항상 창조주가 계신다’는 인식이 아니겠는가? 이 인식만이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줄 것이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요셉이 그러했고(창 39:9), 다윗이 그러했고(시 50:10,11),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단 6:10). 이 세상은 점점 더 무패하고 약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파고 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대로 살도록 유혹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것만이 좌악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줄 것이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근고(困苦)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樂)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創造者)를 기억하라”(전 12:1) *디움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2002 중현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②

현지인들을 대하는 마음 및 태도

우리가 단기선교를 나가는 목적이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지식이나 문화, 문명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면, 우리는 분명 그들 앞에서 의식될 수 있고, 새로운 문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 그리스도의 종은 결코 현지인의 문화나 생활환경을 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종은 현지인의 습성이나 특성 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고(막 10:45),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활을 요구하셨다. 우리는 현지에 가기 전부터 그들의 삶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존중하며 어떻게 해야 이들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지를 대개 기도하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현지인들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그곳에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무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인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감정으로 그들을 안을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 안에서 그들을 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만날 현지인들을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부인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전할 수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 함이니”(고전 9:22). 약할 때 감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시다(고후 12:10).

CMTC 제2차 교육 안내

•교육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장 소: 갈릴릴

•언어교육: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카작스탄어, 스페인어, 인도어

•교육료 / CMTC수업 후 19:00~20:00

주요반 / 1교시: 18:20~19:20(1차 수료생 대상) 2교시: 20:30~21:30

	1교시 / (주 18:20-19:50) (토 17:00-17:30)	2교시 / (주 19:50-20:20) (토 17:30-19:00)
제1강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제2강	단기선교설계(김의철 장로)	팀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은희 전도사)
제3강	단기선교설계(노광원 장로)	타문화의 이해(김동환 목사)
제4강	단기선교설계	비교종교학(김봉준 전도사)
제5강	단기선교설계	국내외국인사역과 선교(송길환 목사)
제6강	단기선교설계(전홍렬 장로)	단기선교의 실제(1)(오태규 전도사)
제7강	단기선교설계	단기선교의 실제(2)(민병준 전도사)
제8강	단기선교설계(임무천 장로)	전도훈련(여국근 목사)
제9강	단기선교설계(김영수 장로)	응급처치(조진제 장로)
제10강	선교와 역사(차병준 목사)	회회예배(수료식)

정성이 아빠께

하얗게 눈부신 볼 햇살이 꽤나 뜨겁게 느껴지는 즈음입니다. 그 동안에도 평안하셨지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신촌 가정부에서 만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는군요. 정초에 정성이를 처음 뵈을 때 보다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의젓해진 것을 보면 4개월이 짧은 기간만은 아니군요.

교사로 새움을 받았지만 제가 오히려 그 동안 나눴는 시간을 통해 정성이 아빠 엄마의 연세시절 애기와 결혼 애기,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관한 진솔한 얘기들을 듣고 특히,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신앙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성이 아빠가 제 교사인 셈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 시절 저는 예수님을 그다지 중요하진 분으로 여기지도 않았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지 않는 여느 젊은이들과 다를없이 오직 세속적인 성공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일을 핑계로 하루나 날 밤낮 없이 술을 마시었고, 주말 예배는 회사일이나 친목모임보다 언제나 후순위에 있다보니 마치못해 드라게 되고 그나마 겨우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와도 예배시간에 그저 무뎌무뎌 출다가 돌아가기 일쑤였지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왜 교회에 왔잖나 실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아침 신자'의 전형이었는데 이게 웬 조화이며,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일어날까를 찾으면서 쫓긴 자를 돌보시며 성한 자를 싸매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저를 어느 날 꼭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큰 사건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니다.

정성이 아빠!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라고 했ند가요? 주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는 저를, 정말 온갖 세상의 때가 다 묻은 자를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일꾼으로까지 써 주시는군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격을 어찌 이 짧은 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주님 앞에 진이 엄정된 사람의 빛을 갈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 사람의 빛을 갈는 길은 정성이네 가족처럼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히 가정용 세뇌 가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정성이네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정성세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변화할 수 있기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동욱 올림(신촌 가정부 교사)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준호·강정남 부부 (신촌 가정부)

무뎉죽히지만 믿음직하며 성실한 그리고 저를 무지 사랑해 주는 신랑과, 딸 노릇을 하는 큰 아들 기태와, 사내다움이 풀풀 넘치는 둘째 아들 기욱이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 가족입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저도 그랬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엔 새가족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둘째 형님 권유로 신촌 가정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주만 이해하고 낯설던지요. 선생님께서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써 주신 것이니 고맙게 여쭙고 싶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희 태의 이름을 주셨지요. 기다리던 아이라 감사해서 기도로 열심히 드렸어요. 하지만 그 기도도 오래 가지 못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마음에 들어와 은혜가 되고 메시에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찬송가 410장 '야 하나님은 은혜로'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원들과 교제도 나누다 보니 꽃 뿔우리가 활짝 피었을 때처럼 그런 기쁨이 넘쳤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경공부는 물론이고 4살 난 아들과 입을 모아 찬송도 열심히 부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될게요.



나의 삶, 나의 비전

김창용·이지영 부부 (신촌 가정부)

대학시절 나는 신학에 뜻을 품었었다. 그 깊은 당연히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었었다. 그래서 전공도 주저 없이 철학을 택했었다. 대학 1학년 때까지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써를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지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면서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나는 왜 신학을 하려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기도원에서 들어가, 내가 신학을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하려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오랜 기간 끝에 나는 신학의 길을 접기로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지 모를 쇠환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이제 내일이면 환관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그 비전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으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담당했다. 그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6. 영혼하시는 아버지(사 9:6)

예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것은 열렬 보편 신학적인 모순 같다. 어찌 아들이라 자칭하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셈 어계(語系)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대 자, 창시자'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영혼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그의 이름은 '영혼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다.

'위어스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원'이 '시간의 개념' 속에 침범하셨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독특하고도 정확한 표현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므로(1:1),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영원이시지만(간 21:6),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양이 되시려고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 오셨다",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히 5:9). 그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히 9:12),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히 9:15). 그는 우리가 속해 있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영원'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영원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정복하신다. 예수님은 실제로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와 죽으셔야 할 때를 정하여 알고 계셨으며, 시간을 정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 시간의 궁극적인 무기는 사망이다. 예수님은 사망 역시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승리해 차서 외칠 수 있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다. 최상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팔 소리가 나며 모든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2). 우리에게 있어 이 마지막 변화가 최후의 변화가 될 것이고,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원은 사망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시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영원한 투자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시간에 살지만 동시에 영원에 산다. 그것은 우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영혼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사] - 교회의 형성과 발전(2)

초기 신앙공동체 형성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에 세워진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출발도 성경과 성령이 있는 곳으로 디움이 올라가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내한하여(주로 의료와 교육 선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교에 착수한 직후부터 그들은 한국인들의 강력한 복음수용 욕구를 느꼈을 수 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지방에서 교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진해서 찾아오는 현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성경이 우리 말로 번역되었고, 그것을 국내에 반입시킨 서상례, 백홍준 등 전도인들에 의해 상당수의 구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대목에서 언급하였다. 국내 성경 반포의 주역 서상륜은 만주의 로스에 의해 서울 전도인으로 파송받아 1883년 봄에 입국한 후 2년 동안 전도한 결과 70명의 개종자를 얻었고, 1885년 3월 초에 만주로 가서 로스를 만나 전도 상황을 보고한 후 한국을 방문해서 개종자에게 세례를 줄 것을 로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로스는 만주선교 사정 때문에 방문할 수 없었고, 서상륜은 다시 입국했으나 갑신정변이파로 서울에서 전도활동을 할 수 없어 동성 서경조가 정착해 있는 황해도 소래에 내려가 머물렀다. 그곳에서 동성과 함께 전도하여 20여 명의 구도자가 생겼고 그들을 중심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니'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소래교회의 시작이다.

소래에서 이러한 전도 결실을 남긴 서상륜은 1886년 말 서울로 언더우드를 찾아가 소래를 방문하여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교사의 지방여행은 아직 불가능했던 때라 서상륜은 소래 교인들을 이끌고 서울에 와서 세례를 받도록 주선하였다. 그 결과 1887년 9월 초에는 소래 출신 세례교인만 11명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처럼 자진해서 찾아 오는 구도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1887년 9월 27일 서상륜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있던 서울 신자 등 14명이 서울 정동 언더우드 사택에 모여 언더우드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이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의 출발이다.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로 '새문안교회'가 창설된 것은 이같은 자발적 세례교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첫 조직교회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 행위에 의해 그 구성원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상륜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개종한 교인들이 주축이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에 대한 정보 내지는 진리를 접한 바 있었고,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신앙을 결단하여 선교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초대 한국인 신앙공동체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성령의 말씀'을 동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고, 실제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만주·한국 등 곳곳에 신앙공동체를 일구어냈다. 그 전도길은 사도 바울의 행로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갈기는 순례자'의 의미지는 한국 초기교회의 원형인 것이다.

구역담방

버림당하신 구주

2교구 삼성 1, 2구역 / 구역장:김옥기·이한복집사



삼성구역은 원래 하나의 구역이었으나 배가의 배가를 하여 지금은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 삼성구역이 이처럼 배가를 한 것은 사람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전도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삼성구역원들의 이웃 사랑은 바로 이웃 전도로 이어졌고, 이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맺어진 구역원들은 구역원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컨사님 덕에 모여 교제를 나눈다.

그 교제의 주인공은 구역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평생을 버림당하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당하셨다.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버림당하셨으며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당하셨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당하셨으며 결국엔 온 인류로부터 버림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구역원들은 자신들도 날마다 주님을 버린다고 고백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일을 위해 주님을 버린다고. 언제까지 주님을 버릴 것인가? 삼성구역원들은 주님을 버리지 말고 서로 당부했다. 나아가 이젠 우리를 드리고자 권면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 죽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드러야 하는가? 주일성수를 위하여 강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상담을 원하는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이웃에게 예수를 전할 수도 있다. 삼성구역원들에게 이러한 포기과 드림이 있었기에 배가 전도의 속박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권오섭 집사)

다움주일 찬송

281장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송은 미국 음악인인 아론 채핀이 1805년에 작곡한 황금언덕(GOLDEN HILL)의 곡에 맞추어 여러 선교사가 성만찬 찬송으로 작사한 것이다.

이동성 집사(남48세) 직장에서 실험도중 인육 팔꿈치를 다쳐, 고정했던 기브스는 풀었으나 팔꿈치 부위의 신경 손상으로 한. 양방 치료 중입니다. 손상 부위가 완전하게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되고 싶지 않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버린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고(고전 11:27) -4절-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함양치 않게 받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버린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고(고전 11:27) -4절-

늘 사모하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가이 뵈겠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주님을 반가이 보려면 그가 부활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결실이 있어야 하리라는 내용이다. -5, 6절-

성서문류 성행(떡과 잔을 돌리는 동안) (한양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경주♥이희경' 자매를 소개합니다



언니는 공무원이고 동생은 학생이며 두 자매 모두 영화감상이 취미입니다. 가족 중 어머니가 세례교인이시고 두 자매도 다른 교회에서 2년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작은 길 할머니께서 중환교회에 다니시는데 집안이 한 교회로 다니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다들 교회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목사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었으나 이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하며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선생님이 매우 친절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10교구 김현아 집사(여34세) 푸프스

(전신성 흉선암 14년)로 면역 결핍되어 여러 질병이 유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완치가 어려워 큰 수술을 앞두고 병의 악화를 막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만할 것과 병의 치유, 병 중에 산한 아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1교구 김준호 집사(남76세) 폐결핵이 위중하여 팔꿈치

잘 못하십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동성 집사(남48세) 직장에서 실험도중 인육 팔꿈치를 다쳐, 고정했던 기브스는 풀었으나 팔꿈치 부위의 신경 손상으로 한. 양방 치료 중입니다. 손상 부위가 완전하게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우성(남59세) 놀이터에서 낙상하여 팔꿈치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성장판(뼈가 자라 키를 크게 하는 뼈의 한 부분)의 기능이 원형화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유재하 집사(여59세) 안면 신경마비로 치료 중인데 회복이 더뎡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아일기 발표

이수진 (민음1반 이경찬,이예찬 엄마)



나의 사랑스런 경찬아, 예찬아! 요즘 너희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 아반 얼마나 기쁘고 신기한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꼬물꼬물 거리던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재롱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너희들이 내 배 안에서 나온 아이들이 맞는지 믿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단다.

우리 경찬이가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말도 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혼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 아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행복감을 느낀다.

경찬아, 예찬아! 또한 엄마 아반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줄지도 참으로 궁금하구나. 정말이지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에,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오로지 말쑥오만 너희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엄마,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각이 되기도 하단다.

손꼽아 기다려요!

문하영 (유치부 열매2반)



교회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유치부에 빨리 가고 싶다.

선생님이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

전당, 울동도 참 재미있다.

천도사님 말씀도 참 재미있다.

본관공부 할 때는 지팡이도 잡고,

성경책도 만들고, 갈대상자로 만들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많이 기다려진다.

많은 내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엄마! 나 누구 교회 데리고 갈까?'라고

매를 쓰기도 한다.

성경의 생

스가랴(Zechar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1)

'스가랴'는 환상과 상징, 마지막 시대의 일들과 메시아의 도래(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때문에 '구약의 묵시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결한 생활과 영적 부흥, 그리고 성전 재건의 완성과 소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통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묘사와 함께 메시아 사상과 종말론적인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는데,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12:16).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는 다리오 왕이 년 5월(학 1:1),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이 년 7월(학 5:1) 예언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성전재건이 잠시 중지되어 14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학계는 훈계하고 설교하는 실천주의자인 반면에 스가랴는 격려와 표적,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읽으실 때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장~6장까지는 여덟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환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장~8장까지의 네 대 가지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편의 설교를 시작할 때에는 항상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도"라고 묘사되어 있으므로 구별하여 용이합니다. 특별히 이 네 편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장~14장까지로,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와 완전한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은 신약에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욱 목사(순천국교회)

【믿음의 학교에서】

떨기나무 불꽃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이시기도 합니다(사 45:15).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념에 사로 잡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분의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B.S Childs). 그러면 모세에게 보여 주신 떨기나무의 불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장인의 집에서 디부살이를 하며 양을 치던 모세는 애굽에 있는 종족의 율부짓는 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습다. 그는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사건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돌이켜 가시' 보았습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것이었기에, 모세는 매일 다니던 길에 있던 그 떨기나무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돌이켰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그는 떨기나무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그 계시'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적은 없었던가요? 이 말세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마 24:42-44; 13:33).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3:4). 그리고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3:6).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3:10).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3: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영희 기자)

모임

1. 장로 필요세백기 기도회
일시: 29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회오세백기 기도회
일시: 30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목관 109호
3. 찬양위원회 부장간·총무 연례회의
일시: 오늘 15:00
장소: 찬양위원회실(본당 401호)
4.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강민홍
5.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당회실
6. 교정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배다나루
7. 권사회 전체 임원월 기도회
일시: 29일 19(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남교회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장신교)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5	5	이 훈	최명환	안종욱	이형수	조인재	이병영	라미애	김영화
	12	이홍욱	이태식	김학기	조도현	김의철	강희창	이윤자	양신자
	19	박단양	조광남	김갑남	김갑남	엄필식	강희창	박희자	김숙송
	26	김영달	이갑재	이계인	이성호	남신우	표찬식	홍영남	최지나

다음주 새벽기도회 담당

	29(월)	30(화)	5/1(수)	5/2(목)	5/3(금)	5/4(토)	5/5(주일)
설교자	정현민	김동하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이수근
기도자	이실호	임창식	허명호	김형철	박병태	장해구	최문실

별 세

1. 정임순 성도
(배정돈 집사 모친, 이규숙 권사의 시모
교구 백마구역) / 14일 별세, 16일 장례

결혼

1. **유창성 군**(유여창 씨, 이신복 씨의 아들)과
남윤정 양(남이현 성도, 이상호 집사의 딸, 19
교구) / 27일(토) 1300, 한국과학 기술회관
웨딩홀
2. **문한성 군**(문한서 씨, 홍수연 씨의 아들, 19
교구)과 지선화 양(김병식 집사의 딸, 영남
제일교회, 19교구) / 5월 1일(수) 1300, 갈릴
리홀

3. 신원훈 군(박병준 성도의 아들, 4교구)과 전 은숙 양(전계갑 성도, 안경자 성도의 딸, 여의도 순복음교회) / 5월 3일(금) 13:00, 갈릴리홀
4. 신경철 군(신현덕 성도, 이강분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손민수 양(손병의 씨, 정영자 씨의 딸) / 5월 4일(토) 14:00, 일산 순복음교회 ☎031-903-3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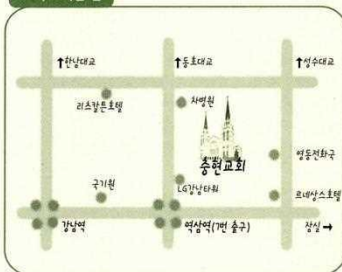
헌혈안내

일 시: 8일(수) 9:00~11:00

11일(토) 13:00~16:00

장 소 : 본당앞

교회 오시는 길



예 배 안 내

구분	시 간	참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 드는 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2002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남자 55명, 여자 65명, 총 121명

오늘(28일) 창양예배시에는 2002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이 진행된다. 이번 세례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121명(남55명, 여66명)으로서, 세례 32명(남11명, 여21명), 개종 25명(남14명, 여11명), 입교 15명(남6명, 여9명), 개종 4명(남1명, 여3명), 유아세례 45명(남23명, 여22명)이다. 학습세례에 참여하는 해당자들은 4시30분까지 본당의 지정된 좌석에 미리 오셔서, 진행되는 학습세례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297	이해철	1	청년2부	송기경(1)	309	강봉진	14	청년1부	조연이(6)
298	임원빈	1	청년1부		310	정주희	19	고등부	정익수(19)
299	전은영	1	청년1부		311	강지연	19	고등부	정익수(19)
300	이진희	19	예배마루	정순옥(1)	312	오경아	19	고등부	이지영(3)
301	김동중	2	메트로		313	이상강	19	고등부	
302	김현덕	4	보도부	김일중(4)	314	김태대	19	고등부	조영택(6)
303	김무들	4	청년2부	김구복(4)	315	손경진	19	고등부	
304	김강심	7	소양부	윤종자(7)	316	박재우	19	청년2부	소상훈(1)
305	주미정	7	청년1부	이상민(7)	317	한남기	19	청년1부	김성진(7)
306	최성하	8	마울	최광자(8)	318	정경철	19	대학부	남승은(18)
307	김정훈	9	청년2부		319	장성태	19	청년1부	
308	조연자	14	엑스더	조연이(6)	320	김정식	19	대학부	김봉기(19)

* 출회고회의 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중보의 창

- ㉠ **김장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뜻하시는 것으로 성결한 열매를 맺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을 위에 굳게 서서 영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노력을 소유히게** 하소서.
- ㉢ **성도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선으로 자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 **총현회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서로의 기쁨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 **교구별 개신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현회교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동맹자** 되게 하소서.
- ㉦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정로 | | | | | 부둣마 | | | | |
|----------------|-------|-------|-------|-------|--------------------|-----|--------|--------|-----|
| 김의철 | 김은호 | 노광현 | 오전국 | 이병학 | 이승태 | 정현민 | 김동하 | 차병준 | 김병만 |
| 신라대학교
신라대학교 | 신라대학교 | 영남대 | 11교 | 고려대학교 | 2교 | 1교 | 가톨릭대학교 | 신라대학교 | 1교 |
| 윤인현 | 최태연 | 임필성 | 강도홍 | 오정현 | 서광진 | 정혜성 | 이준경 | 박민기 | 여정숙 |
| 신라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고려대학교 | 제천대학교 | 2교 | 2교 |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2교 |
| 이 훈 | 남순주 | 정운석 | 김영길 | 문홍구 | 류병희 | 노경록 | 이종철 | 김영춘 | 여국경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2교 | 2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2교 |
| 조진태 | 김종구 | 최무길 | 김현채 | 이창호 | 김교성 | 송길환 | 이승근 | 이유진 | 안창환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2교 | 2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2교 |
| 차진득 | 박성익 | 김장남 | 이종식 | 윤성철 | 방준영 | 나광영 | 정진호 | 김용덕 | 이성준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2교 | 2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2교 |
| 이하영 | 이병욱 | 안종욱 | 최명환 | 임무천 | 고광환 | | | |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1교 | | | | |
| 이종섭 | 최기훈 | 이갑재 | 전홍용 | 전홍철 | ■ 중앙감독 감임구 | | | |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1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 | | | |
| 이정우 | 김단홍 | 황영일 | 한승규 | 김영수 | ■ 강 도 사 이정철 | | | | |
| 서라벌대학교 | 1교 | 1교 | 1교 | 신라대학교 | | | | | |
| 정종수 | 김한기 | 원용철 | 이형수 | 안동현 | ■ 여진도사 | | | | |
| 영남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 | | | |
| 황희만 | 김기현 | 최윤덕 | 이계인 | 박덕양 | 김옥순 | 현종훈 | 김연석 | 홍순애 | 이옥경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2교 | 1교 | 2교 | 2교 | 2교 |
| 이태식 | 정태복 | 박홍규 | 권명옥 | 조종환 | 김갑자 | 안태준 | 최희성 | 김정연 | 조옥자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2교 | 2교 | 2교 | 2교 | 2교 |
| 배준식 | 김영래 | 이성호 | 박찬섭 | 최치윤 | 강덕필 | 김정진 | 장해구 | 최문실 |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2교 | 2교 | 2교 | 2교 | |
| 노연현 | 김기현 | 정정길 | 신상수 | 강철형 | ■ 교편전도사 박당덕 | | | |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 | | | |
| 고재승 | 김영준 | | | | ■ 선교전도사 정은희 | | | | |
| 영남대학교 | 영남대학교 | | | | | | | | |
| | | | | | ■ 단기전도사 장기업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평신도사 최은아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현직사교사 전 오 세 (의무) | | | | |